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송 광 성**
이 중 원
김 범 준
김 하 연

- I. 연구의 개요
- II. 청소년인구와 가족
- III. 청소년과 교육
- IV. 청소년과 노동
- V.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 VI.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
- VII. 청소년비행
- VIII. 청소년의 사회·국가의식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기본방향

청소년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생활·의식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와 현실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이내 현실적 적합성을 상실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각종 공식통계자료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수합·정리하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 변화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사회지표의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의 개발은 그 사업의 성격상 개별 연구자의 차원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

*이 논문은 본 연구원의 1991년도 연구사업인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본 연구원의 송광성(책임연구원), 이종원(주임연구원), 김범준(연구원), 김하연(연구원)임.

적인 정리·분석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실태조사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자, 기관의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 ①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방법 등이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조사결과와 일반화에 한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 ② 청소년 연령구분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자료간의 상호비교가 불가능하고,
- ③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 ④ 조사분야가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연구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사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 ① 조사결과를 한국사회의 전체 청소년들의 실태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조사대상의 대표성),
- ② 조사영역·항목선정의 타당성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관련 정부기관·단체·학계의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조사내용을 확정하고(조사내용의 타당성),
- ③ 일정한 주기를 두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조사함으로써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청소년 지표사업을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지표의 선정·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의 정리·분석과, 지표로서 다루어져

야 할 조사항목에 대한 1차적인 검증작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크게 기본 통계자료조사와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통계자료조사는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각종 백서·연감류, 국책연구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공포한 청소년관련 통계자료들을 정리·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들은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청), 「보건사회통계연보」(보건사회부), 「범죄백서」(법무부) 등이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통계자료를 통한 접근방법 이외에 이들 통계자료로는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의 설문조사의 연구결과를 정리·검토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함과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새롭게 설문지를 개발하여 전국의 학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학생청소년으로 국한시킨 것은 본 연구의 중점적인 연구대상인 10대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학생청소년으로서, 무직청소년, 근로청소년은 인구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그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어서 표본추출상에 많은 문제점

〈표 1〉

표 본 집 단

	서 울	직할시	시군부	계
중학교	323(15.9)	210(10.3)	494(24.3)	1,025(50.5)
인문고	201(9.9)	201(9.9)	200(9.9)	602(29.7)
실업고	100(4.9)	96(4.7)	205(10.1)	403(19.9)
계	624(30.7)	507(25.0)	899(44.3)	2,030(100.0)

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표본의 선정은 전국의 학생청소년들을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총화하여 각 범주별로 실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표집 *quota sampling*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본의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크기를 2,000명 정도로 설정한 뒤 전국을 서울, 직할시, 시·군부의 2대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조사지역(단, 직할시와 시·군부는 영·호남지역으로 한정함)을 임의로 선정(직할시:부산, 대구, 광주, 시군부:진주, 함안, 보성, 순천), 권역별 실제 연구비례에 의거하 조사표본을 학교단위로 할당하였다. 조사대상학교는 「학교연감」에 의거하여 지역별로 2배수로 무작위 추출한 뒤 설문조사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 학교장의 양해하에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학교의 수는 총 39개교이다(서울10, 부산5, 대구5, 광주7, 진주3,

함안3, 보성7, 순천2).

조사대상 학교가 선정된 뒤에는 연구자가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매당 평균 40분정도였다.

II. 청소년인구와 가족

1. 청소년 인구

우리나라의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인구의 비율은 1989년 현재 약 13,641천명으로서 전체인구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구의 남녀간의 비율은 51.6%:48.6%로서 전체인구의 성비와 비교할 때 남초(男超)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근년에 접어들어 한, 두자녀만, 특히 아들만 낳고 단산하는 소자녀가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

〈표 2〉 청소년 인구

(단위:천명, %)

	전 체			청 소 년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수	42,380	21,359	21,021	13,641	7,033	6,608
비 율	100.0	50.4	49.6	100.0	51.6	48.4

자료: 경제기획원(후계인구)

〈표 3〉

요보호아동 인구 추계

(단위: 1,000명, %)

	총인구	아동인구(A)	요보호아동	
			인 구(B)	구성비(B/A)
1990	42,793	13,677	639	4.7
1995	44,870	12,881	527	4.5
2000	46,828	12,251	435	3.6

자료: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지침」(1991)

인구의 남초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인구성장율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 전체 인구중에서 청소년이 접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 청소년과 가족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핵가족이 보편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점차 붕괴되어가고 있다.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4.1명(1985)까지 줄어들어 부부와 미혼의 두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이 현대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1985년 우리나라 가구중 불안정가구의 비율은 45.5%로서 전체가구의 1/2에 근접해 있다. 1975년의 불안정가구 비율 31.5%에서 불과 10년 사이에 14%가 증가한 것이다. 불안정가구의 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노인가구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여 32.8%(1985)에 이르는데, 이것은 197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를 알 수 있다.

부모의 유기, 미혼모의 출산, 가출 등의 요인으로 형성되는 요보호아동(0~18세)은 1990년

현재 약 639천명(추계)으로서 전체 아동인구의 4.7%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되어감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비율은 점차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가족의식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과반수에 가까운 49.7%의 청소년들이 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로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중립적인 입장의 청소년도 30.8%에 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주요변인별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세변인을 교차하여 얻은 8개의 하위집단중에서는 대도시 중학교 남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고등학교 여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

전체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

(단위 : %, 명)

	불만	그저 그렇다	만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8.6	30.8	49.7	0.9	(2030)	
성별 남	15.8	27.9	55.3	1.0	(1017)	$\chi^2=37.52\cdots$
여	21.4	33.7	44.1	0.8	(1013)	
교육 중	15.9	28.7	54.1	1.4	(1025)	$\chi^2=40.00\cdots$
고	21.4	32.9	45.3	0.4	(1005)	
지역 대도시	20.2	29.3	50.0	0.5	(1131)	$\chi^2=17.83\cdots$
시군부	16.6	32.7	49.4	1.3	(899)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욱 만족을 나타내었고, 전체 청소년의 약 1/3이 부모와의 의견대립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어머니의 관계, 형제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자녀의 대화빈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대화빈도가 더욱 많았다. 자녀의 학과공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경을 쓰는 정도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소 앞서고 있었다.

바람직한 부친상으로는 일중시형 보다는 가정주시형의 아버지, 엄격형보다는 친구형의 아버지를 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상적인 모친상에 있어서도 가정중시형, 친구형의 어머니를 더욱 선호하였다.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핵가족보다 대가족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남아선호사상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였으며, 주부의 직장취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모님의 부양책임은 장남에게만 있지 않고 아들·딸 모두에게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앞으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반드시 자신이 모시겠다는 응답은 30%남짓하였다.

부모님간에 의견이 대립될 경우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에서는 약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정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부모님의 이해부족을 꼽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전체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8.6년인데, 남자는 9.7년이고 여자는 7.6년으로 여자는 남자의 78.5%밖에 안된다. 남녀간 교육기회의 차이는 고등교육에서 더 커지는데 남자는 대졸 이상자가 15.5%인데 여자는 5.2%밖에 안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10.9%인데 일본의 14.3%나 미국의 32.2%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III. 청소년과 교육

1. 교육기회와 인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교육기회를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일수록 자식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크며 아들과 딸에 대한 차이가 적은 반면, 교육을 적게 받은 부모일수록 자식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낮고 또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학생수의 변화를 보면, 국민학교 입학자수가 1975년 이후 많이 줄었고, 중학생은 1985년 이후에 줄기 시작했다. 농아·맹아·지체부자유자 등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학생수는 196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여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선 남학생과 숫자가 비슷한데 실업계 고등학교와 교육대학에선 오히려 여학생이 더 많고, 대학교에선 여학생 비율이 아직도 상당히 낮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낮은 측에 들어 동양 국가들이 아직도 남녀차별이 심한 것 같다.

취학율이란 그 해에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사람중에서 몇명이 실제로 학교에 가는가를 재는 수치이다. 학교에 갈 나이는 국민학교가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대학교는 18~21세이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 초·중·고학생의 약 1/3이 모여 있고, 대학생은 서울에 28%가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은 약 65:35인데 기능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생각할 때 실업계의 비율이 더 높아야겠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방송통신대와 개방대가 늘어나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가 정규대학생수의 19.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학교들이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율이 33%밖에 안되는 요즘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 같다.

각급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고졸의 약 1/3이 취직하는데 사무직을 제일 많이 얻고(35.4%) 생산직에도 약 1/5이 취직하는데 최근엔 전문·기술직에 취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고교졸업생 중에서 진학도(33.1%) 못하고, 취직도(33.8%) 못한 사람이 졸업생의 33.1%나 된다는 사실은 큰 걱정거리다.

요즘 대학졸업생의 절반도 안되는 48%만 취

<표 5>

국민의 학력구성

(단위 : %)

1970	계	73.4	11.5	10.2	4.9
	남	61.2	15.1	15.2	8.5
	여	84.7	8.2	5.5	1.6
1985	계	43.4	20.5	25.9	10.2
	남	31.9	20.5	32.1	15.5
	여	54.1	20.5	20.2	5.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표 6〉 교급별 취학을

(단위 : %)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대 학 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66	96.8	95.5	42.1	31.6	26.8	18.7	—	—
1970	100.7	100.2	51.2	40.6	28.1	21.6	8.8	4.5
1975	107.8	105.3	72.0	63.1	41.0	32.5	9.5	5.4
1980	102.9	103.7	95.1	92.5	63.5	56.2	16.0	8.1
1985	99.9	100.1	100.1	99.6	79.5	75.5	35.6	21.6
1990	102.5	103.2	96.9	97.0	87.6	85.0	38.1	24.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직이 되는데, 서비스업종에 제일 많이 취직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에 많이 취직한다.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중학교는 28.5%, 고등학교는 50.5%, 그리고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80.2%가 된다. 최근 학교규모는 농촌의 국민학교가 학생수 150인 이하의 소규모로 많이(44.6%)변한 것 외엔 대규모화되는 경향이 있어 중·고등학교는 1,500명 이상의 학교가 각각 22%, 41%로 늘어서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타국에 비해 아주 많은 편이다. 학급규모는 소규모화하는 경향이 있어 한반에 30명도 안되는 국민학교 학급수가 많이 늘었고(22%), 중·고등학

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조금씩 줄어서 50내지 52명이 되었다. 반면에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코스당 학생수가 상당히 늘어서 평균이 250명을 넘게 되었다.

2. 교육여건과 재정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지난 25년간 변해온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7〉인데, 국민학교는 학급 크기가 65.4명에서 41.3명으로 37%나 작아졌고, 중학교는 60.7명에서 50.2명으로 17%가 작아졌다. 고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1965년의 54.1명에서 1990년의 51.8명으로 4%가 작아졌다. 반면에 고등교육

〈표 7〉

교급별 학급(과)당 학생수

(단위 : 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1965	65.4	60.7	54.1	75.4	4.4	119.2	66.8	13.8
1970	62.1	62.1	56.2	155.0	42.2	130.7	84.7	13.8
1975	56.7	64.5	57.6	137.3	41.3	146.5	73.0	12.1
1980	51.5	65.5	59.8	247.1	40.3	156.9	119.4	12.6
1985	44.7	61.7	55.9	225.0	47.7	298.1	249.6	13.8
1990	41.4	50.2	51.8	256.1	46.2	259.4	219.6	11.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8〉

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1965	62.4	39.4	30.2	19.9	10.2	10.8
1970	56.9	42.3	29.7	18.8	14.0	10.5
1975	51.8	43.2	31.4	20.7	15.0	9.9
1980	47.5	45.1	33.3	27.9	26.7	10.0
1985	38.3	40.0	31.0	35.8	42.9	9.1
1990	35.5	25.3	24.6	31.1	47.5	7.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기관은 코스당 학생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 하루에 2부제 이상의 수업을 하는 국민학교 학급이 약 8,000개나 된다니 놀라운 일이다. 교원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에게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면서 커졌다. 국민학교는 남녀교사의 비율이 1대 1이 되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1.2 대 1이 되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선 아직도 남녀교수 비율이 2.8 대 1이고, 대학교는 더 심해서 4.6 대 1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과 한국의 여교원 비율이 제일 낮은 축에 든다.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도 한국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국민학교는 일본의 1.6배, 이태리의 2.5배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일본의 1.4배, 이태리의 2.6배,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일본의 3.4배, 서독의 3.9배가 된다. 최근에 대학원 교육이 확장되면서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의 학위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박사학위 가진 교원이 41.4%, 석사학위 가진 교원이 40.7%로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960년 이래 많이 줄어

서 국민학교는 35.5명, 중·고등학교는 약 25명이 되었는데, 대학교는 오히려 20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편인데, 학생 1인당 기본교지는 중·고등학교에서는 1960년대의 80%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학은 44% 수준으로 떨어져 사정이 더 나빠졌다. 도서관 숫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현재 중학교 92개에 도서관 1개 꼴이 되었다. 또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중·고등학교가 30% 증가했으나 대학교는 36%나 감소했다. 대학교 도서관의 학생당 장서수는 1970년의 25.6권에서 현재 18.5권으로 줄었다. 청소년교육을 제대로 하자면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정을 보면, 문교예산이 국민총생산의 3.6%에 불과하고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보조가 총비용의 6.6%밖에 안된다. 각급학교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학교경비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투자되기 때문인 것 같다. 국민학교는 경상비의 9.5%, 중학교는 7.4%, 고등학교는 6.1%, 대학은 좀 낫다고 하지만 13.6%밖에

안된다.

한국의 공교육비중에서 고등교육에 쓰이는 비율이 9.5%밖에 안되어, 21.7%인 일본의 2.2분의 1, 39.4%인 미국의 4.1분의 1이 된다. 다.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급 과학기술의 발달이 요구되는 요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학사람에게 쓰는 공교육비는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국민학생에게 쓰는 479억달러는 일본의 36%, 중학생에 쓰는 542달러는 일본의 37%, 고등학생에게 쓰는 1,484달러는 영국의 24%에 해당된다. 가계지출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도시가구의 경우 지난 25년동안 별차이 없이 8.7%이고, 농촌가구의 경우는 6.8%에서 10.5%로 늘어났

만명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260여만명으로 14.2%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여자는 40.4%인데,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62.2%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1주일에 1시간도 돈버는 일을 하지 못한 실업자가 2.4%인데, 그중 청소년은 7%이다.

1965년에서 1989년까지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는 농·어업 종사자가 제일 많이 줄어 19.5%가 되고,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일 많이 늘어 52.3%가 되었다. 직업별로는 생산·운수직이 제일 많이 늘어 34.5%가 되었다. 1990년 현재 청소년 취업자는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여(약 56%) 전체 취업자의 14%를 구성하고, 직업별로는 제조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여(약 41%), 전체제조업 종사자의 약 21%를 구성했다.

전체 취업자를 교육정도별로 구분하면, 고졸이 제일 많아 약 38%이며 국졸 이하는 29%인데, 여자는 국졸 이하가 제일 많아 약 41%이며 고졸이 31%이다. 청소년 취업자를 다시 연

IV. 청소년과 노동

1. 고용구조와 환경

1990년 현재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1,840여

<표 9>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단위 : 1,000명)

	15세이상 전 체	청 소 년		
		계	15~19세	20~24세
1984	14,997(5,658)	2,630(1,410)	729(400)	1,901(1,010)
1985	15,592(5,975)	2,581(1,428)	713(399)	1,868(1,029)
1986	16,116(6,296)	1,996(1,495)	698(395)	1,927(1,100)
1987	16,873(6,735)	2,620(1,540)	744(428)	1,876(1,112)
1988	17,305(6,891)	2,500(1,518)	652(395)	1,848(1,123)
1989	17,971(7,254)	2,558(1,564)	663(393)	1,895(1,171)
1990	18,487(7,474)	2,630(1,635)	634(389)	1,996(1,246)

주 : ()안의 수치는 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령층별로 구분하면, 20~24세의 근로자가 3/4 이 넘는 76%를 차지하고, 청소년이 종사하는 여러 직업중에서 금융·용역업이 제일 여성화되어서 전체 취업자의 79%가 여자다.

취업경로를 보면, 친구나 학교의 알선이 제일 많아서 전체 취업자의 51%가 이용했고, 취직시험은 10%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59%가 친구나 학교의 알선을 이용하고 취직시험은 13%가 이용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54%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84%가 상시고용인이고, 전문·행정임금근로자 비율이 제일 높아 89%나 된다.

청소년 근로자는, 91%가 임금근로자이고 이들의 94%가 상시고용인이다. 청소년 취업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66%로 제일 많고 이들의 절반이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중졸이하가 23%인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광공업에 종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전체 취업자의 24%, 경기도에 13%가 모였는데, 청소년 취업자는 28%가 서울에, 13%가 경기도에 모였다.

전체 실업자를 교육정도별로 구분하면, 고졸이 53%, 대졸이 25%, 그리고 여자가 30%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의 14%밖에 안되는 청소년근로자가 전체 실업자의 41%를 구성하고, 여자는 이중 49%가 된다. 청소년 실업자의 2/3이상이 고졸자이고, 이들이 전체 고졸 실업자의 55%를 구성한다. 실업자 중에서 친구나 학교의 알선으로 취업한 사람이 제일 많고, 광고나 구인정보로 취업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다. 실업동기를 보면, “보수가 적어서”라는 이유가 제일 많고, “장래성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그 다음이다.

근로청소년의 임금수준은 전체 근로자의 평

균임금을 기준으로 14~17세는 44%, 18~19세는 51%, 20~24세는 64%밖에 안되어, 일반적으로 성인근로자의 약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단 여자의 임금은 남자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55.3%) 형편이고, 행정·관리직의 임금수준이 제일 높아 평균임금의 2배가 넘고 생산직의 임금이 제일 낮아 평균임금의 83%밖에 안되어,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배에 가깝다. 또 학력별 임금차이도 심해서 중졸 이하는 대졸 이상 근로자임금의 44%밖에 안된다.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970년의 51.6시간에서 1989년의 49.2시간으로 줄었다. 금융·용역업의 근로시간이 제일 짧은 44.6시간이며 제조·운수업이 제일 긴 50.7시간이다. 제조업의 근로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제일길어 한국의 41.4시간보다 22% 더 길고 호주의 37.7시간보다는 34%가 더 긴 셈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1965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동안 총재해자수는 14배 이상으로 늘었고,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2배, 그리고 신체장애자수는 무려 164배로 증가했다. 1989년 한 해만 보더라도 사망자가 1,724명이나 발생해서 하루 평균 4.7명이 일하다 사망했으며, 신체장애자는 2만 5천명이 발생해서 하루에 70명 꼴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재해자가 제일 많이 발생해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사망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광업재해자는 전체의 7%밖에 안되는데 사망자 비율은 18%나 된다. 산업재해자를 나이별로 구분하면, 25~34세 집단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제일 많고,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21%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청소년 재해자가 31%나 되고, 전

기·운수업에서는 25%나 되었다. 1989년 한 해에 28,450명의 청소년이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 198명은 사망했다. 근로자 전체의 안전과 동시에 청소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2. 근로의식

전체 취업자 중 현재의 일터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약 84%이며,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약 11%이다. 전직의사를 가진 취업자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제일 많아 13%인데 그들의 전직 이유중 “장래성이 없다”가 1/3이 넘고(34%), “소득수준이 낮다”가 1/3이 못된다(32%).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산업종사자 중에 전직 희망자가 제일 많아 12%나 되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가 제일 많다(40%).

청소년근로자의 1/5이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가 제일 많고(42%), 그 다음이 “임금이 적다”(26%)이다. 여자 청소년 근로자들은 전직희망자가 14%이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가 1/3이 좀 못되고(32%), “임금이 적다”가 28%이다. 특히 농·어업직의 청소년들은 절반 가까이(46%)나 전직을 희망했다.

실제로 전직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취업자들 중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전직하지 않은 사람은 51% 밖에 안되고; 조사대상자 전체의 28%가 1회, 11%가 2회, 그리고 3회나 전직한 사람은 9%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전직회수가 적었다. 직업별로는 생산·운수직이 전직율이 높아 지난 3년간 1회이상 전직한 사람이 58%나 되었다.

전직을 희망하거나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

람들이 실제로 구직을 하였나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1/3이상(35%)이 실제로 구직을 했고, 전직·추가취업자의 2/3이상(68%)이 새직업으로 임금근로직을 원했다. 약 2/3가 좀 안되는(65%) 비구직자의 이유를 보면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약 1/3(33%)이었고,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비율이 29%였다. 여자는 실제로 구직한 사람의 수가 남자보다 조금 적은 31%였다. 청소년의 42%가 실제로 구직을 하고 여자 청소년 근로자도 40%나 실제로 구직을 해서 전체 근로자에 비해 청소년근로자는 남녀가 다 구직활동에서 더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중에서 구직활동을 안한 근로자들의 이유를 보면,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1/3이 좀 못되고(30%), 새 일자리를 찾으려 다닐 시간이 없어서인 사람이 약 1/4(24%)이 되었다.

임금 근로자들이 직업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이고(43%), 그 다음이 수입(25%)이고, 세번째가 발전성(15%)이라고 한다. 학력별로는 고졸 근로자가 안정성을 제일 중요시 하고, 국졸 이하는 수입을, 그리고 대졸자는 발전성을 제일 중요시했다.

V.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우리의 문화환경은 지난 30년간에 많은 발전을 하여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체육시설, 공원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문화예술환경인 문화재는 1989년 현재 총 2,188개이며 시·도지정 문화제도 1987년 현재 2,235개에 이르고 있다. 박물관 역시 종합, 문예, 역사, 과학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데 1987년 현재 총 164개 이른다. 지역 문화보급의 첨병역할을 하는 문화원 및 마을문고는 1987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학문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1970년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여 1990년 현재 574개소에 이른다. 1989년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은 4,019개이며 1인당 면적은 21.8㎡이다. 1985년에 2,558개소이던 도시공원이 1989년에는 4,019개로 1,461개나 증가했으나 1인당 면적은 1985년의 21.4㎡의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도시공원이 도시인들의 바쁜 생활속에서 정신적 안정과 내일의 힘을 충전시킬 수 있는 쉼터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개인 문화시설로 보면 TV 보급율은 99%가 넘으며 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이 쓰는 라디오, 카메라, TV, 컴퓨터 등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중에서 우리국민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역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비용도 적절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행사에 대하여 반수이상의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불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고 싶어하는 행사는 주로 연극 계통의 언어극, 마당극, 판소리, 창 등의 행사였다. 문화예술을 교육을 받은 경험에 없는 사람이 83.8%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알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여가시간을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가사일 하면서 보내는 경향이 많았다(44.0%). 그러나 청소년들은 친구와 함께 TV등을 보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여가 문화가 성인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가생활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활동비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 격차가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요인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의 문제로 나타났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의 마당과 거리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 뿐 아니라 우리국민 대다수가 여가와 문화생활의 대부분을 대중매체와 보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TV의 경우 주로 연속극을 보며 라디오를 통해서도 음악프로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의 경우에는 TV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았다. 신문과 잡지 등의 여타 여론매체들이 1987년의 6·29 선언이후에 언론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문의 경우 1988년 현재 청소년의 79%가 구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회와 정치 경제기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11.9명의 동성친구와 평균 2.1의 이성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보수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를 주로 학교와 씨름 등에서 사귀며 사귀고 있는 친구와 대부분 만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주로 학업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고민을 자신의 친구와 의논하며 혼자 해결하거나 부모님과 상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문화와 여가라는 방대한 부분을 다루려 하였지만 모든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앞으로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인 지표연구를 통하여 보다 완벽한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실태 파악의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인 19세부터 24세의 연령에 대한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부분에 관한 계속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앞으로의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VI.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

우리 국민 칭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보건관련 시설 등은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여 점차 선진국의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결과 체력은 지난 25년간에 많이 향상되어 신장은 1965년에 비하여 평균 7~10cm의 향상을 보였다. 체중에 있어서도 9~15세의 청소년층은 1985년과 1990년의 5년 사이에 2kg의 증가를 보였으며, 몸무게와 신장 그리고 얇은 키는 일본에 여전히 뒤지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지속적인 질병예방의 노력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줄어들었으며, 주요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순환기계통의 질환이었다. 전염병의

발병 역시 방역과 예방으로 많이 줄었다.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의 발병이 가장 많으므로 하절기에는 반드시 물을 끓여 먹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 결핵의 전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질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적인 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이 요청된다.

의료시설은 1989년 현재 전국에 19,980개소의 의료기관에 93,80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 39,769명, 치과 의사 8,630명, 간호사 211,524명, 한의사 5,435명, 약사 35,756명으로 의사 1인당 담당하는 인구는 1989년 현재 1,066명, 치과 의사, 4,911명, 간호사 200명, 한의사, 7,798명, 약사 1,1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계속 증가하였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과다한 비용과 불친절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료시설이 많아지기는 하였어도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시설 분포의 불균형으로 농촌의 의료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80%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했으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연령에 비하여 청소년층은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한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식사시간은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짧으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의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본연구에서 실시한 중고생 대상의 자료와 국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신뢰성을 가진 기관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중심의 자료를 많이 발견하지 못하여 건

강과 보전에 관한 전연령층의 자료가 적다는 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 연령에 맞는(9~24세)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VII.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업소, 물품 및 악물류, 대중매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년비행을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비행과 상관관계가 높은 시설·업소로는 카페, 숙박업소, 유흥가, 심야만화가게, 음란물 노점상, 사창가, 성인오락실, 퇴폐이발소 등을 들 수 있고 물품 및 악물류로는 담배자판기, 환각제, 마약류, 각성제 등이 있고, 대중매체로는 성인만화, 주간지 성인용 비디오 및 영화류를 들 수 있다.

소년비행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고교생의 과반수 이상이 홀연, 음주, 당구장 출입, 음란서적 소지, 음란 비디오 관람, 돈내기 도박의 경험이 있으며, 1/3 이상이 디스코장 출입, 등록금 유용, 폭행, 공공기물 파손, 소액절도, 가벼운 추행을 경험했으며, 1/5 이상이 여성희롱, 금품탈취, 흥기소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의 인구비는 성인범죄 인구비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계속 증가 또는 정체 추세에 있고, 범죄연령에 있어서는 점차 저연령층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강력범죄의 증가추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범죄소년의 특징으로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정상가정 출신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학생범죄의 비율이 무직, 근로청소년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서울시내 중고교생중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8.3%에 달한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 피해경험자가

〈표 10〉

소년·성인별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

(단위:명, %)

	소 년				성 인		
	인 원	(증감율)	소년비	인구비	인 원	(지수)	인구비
1980	83,959	(100)	17.2	117.9	403,783	(100)	195.5
1985	88,298	(105)	16.8	122.8	438,016	(108)	181.8
1987	80,025	(495)	14.9	111.4	456,011	(113)	180.2
1988	80,641	(96)	16.1	113.5	419,444	(104)	161.8
1989	85,428	(102)	18.1	122.5	386,503	(96)	145.5

주: 1) 소년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이며, 성인 인구비는 20세 이상의 성인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2) 소년비는 $\frac{\text{소년범}}{\text{소년범} + \text{성인범}} \times 100$ 임.

3)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법 포함.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0), p.77

36.1%, 재산범죄의 피해경험자가 42.5%, 성적인 피해경험자(여자의 경우)가 37.8%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청소년중 과반수 이상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II. 청소년의 사회·국가의식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와 같은 불만의 표출방식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체험하거나,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문제일수록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정치·경제적인 문제, 사회인습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순위별로 보면 환경·공해문제, 범죄문제, 교통문제, 청소년비행, 학력차별, 빈부격차, 대학생시위, 지역감정, 노사분규, 세대갈등, 남녀차별의 순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이 학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였고,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적·문화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정도를 문화적인 발전수준, 경제적인 발전수준, 국민인권의 보장수준, 국민들의 복지수준, 정치적인 발전수준, 국민들의 질서외식의 순서대로 높이 평가하였다.

참 고 문 헌

고용구조 통계조사 보고서(1991), 서울:경제기획원
 교육통계연보(1991), 서울:교육부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1989),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농림수산통계연보(1990), 서울: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연보(1991), 서울:농림수산부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 실태조사(1987), 서울:대한 YWCA 연합회
 도중수외 3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1991),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 실업의 실태와 원인(1987),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 범죄연구 제3집(1990), 서울:법무부 범죄백서(1990), 서울:법무부
 보전사회통계연보 제36호(1990), 서울:보전사회부
 청소년의 생활태도와 의식에 관한 연구(1988),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
 한국경제연감(1991),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
 청소년 기사자료집 III, IV(1989), 서울:청소년교육선도회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 통계연보(1990), 서울:체육청소년

부

청소년백서(1990), 서울:체육청소년부

한국통계연감(1990), 서울: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0), 서울:통계청

주요 경제지표(1991), 서울:통계청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1991), 서울:한국
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1991),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의 교육지표(1990), 서울: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 국제비교(1987), 서울:한국교육
개발원

1990년도 사업보고(통계표)(1991), 서울:한국
노동조합총연맹

문예연감(1988),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 자료집(1989), 서울: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화예술통계 자료집(1989), 서울:한국문화예
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국민생활시간 조사(1990), 서울:한국방송공사